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총진군길에 불멸의 생명력을 주시며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가장 경건히 우러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경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 변혁적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견인불발의 투지와 과감한 실천력을 백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새 승리를 반드시 성취할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아버지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 총련중앙일군들의 모임이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우호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부장, 배진구부부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부장, 송근학부부장 겸 교육국장, 서송언 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중앙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에 허종만의장과 박우호제1부위원장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의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이날 강주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장 리성철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을 비롯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일본조선인학생동맹, 조선청년사 일군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16일 조선회관

에서 기록영화 《철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1 《인민사랑의 한평생》이 상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는것을 장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철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무한한 감격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총련 도포도본부를 비롯한 총련의 현분부와 지부, 각급 기관들에서도 추모행사가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중국 길림옥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길림지구협회 회장, 전 부회장가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중앙, 단둥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둥시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모임이 17일 총련합회회의실에서 진행되

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본부일군들과 산하조직 일군들, 심양시 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여 목상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과 력사가 일제기 알지 못하는 애국현신의 대장정에 의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었으며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새 세기 산업혁명 등 자랑찬 성과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 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국과 혁명앞에 영구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현신의 강행군길에 계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전무후무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철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소중히 안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과 력사가 일제기 알지 못하는 애국현신의 대장정에 의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었으며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새 세기 산업혁명 등 자랑찬 성과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 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국과 혁명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아로새기시었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신 혁명의 진로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 강국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마음을 합쳐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애는 숭고한 애국현신의 한평생》,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강국건설의 령도자》, 《강국건설의 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의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수록한 영화문헌을 시청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중앙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둥시지부 등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경보복의지와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단행



전 년간 지속적으로 감행되어온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위협행위가 한해를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로골적이고 위협천만하게 극대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무리들은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이그루빠》회의라는 핵전쟁모의관을 벌려놓고 또다시 우리의 《정권종말》을 꾀쳐대며 공화국에 대한 《핵보복타격》을 실질화한 대규모연합훈련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명년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전망을 세계앞에 분명한 실체로 떠올리고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는 우리

정부와 공화국무력의 강한 분노와 초강경보복의지를 더욱 발화시키고있다.

올해 1월부터 다달이 력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규모의 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하는것으로써 지역 정세를 작심하고 긴장시켜온 적들이 벌써부터 새해에 들어 보다 더 구체화될 침략성이 짙은 전쟁연습계획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있는 현 상황은 결코 변할수 없는 본능적이며 체질적인 침략야망에 빠져있는 미국과 그 투등주구들의 악질적인 대결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며 더욱 엄중하게 번져질 조선반도안전환경전면파괴의 불길한 징조를 예언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전략목적기와 초대형전략핵잠수함, 핵항공포함을 포함한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때없이 들이

밀어 조선반도지역을 맡그대로 미핵전략자산들의 총집합기지로 만든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17일 핵동력잠수함 《미주리》호를 또다시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며 조선반도에 전개시키는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보다 엄중히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지역을 제 집안뉘처럼 들락거리며 정세악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출개군사깡패무리들의 대결망동으로 하여 우리의 령토와 접경지역이 각일각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 공화국의 안전리익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변화된 행동 즉 더 공세적인 대응으로 넘어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군사위협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경고로써 무력화시킬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압도적대응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이 단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의 지휘관들이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은 공화국핵전쟁억제력의 립전태세를 검열하며 기동성

과 전투성,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발사대기구역에서 발사준비를 진행한 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발사훈련계획을 청취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어 전략무기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대장이 제2분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반공화국핵대결야망에 헛뜬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의지와 힘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거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썰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3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 참가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2월 20일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에 참가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주시고 축하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미사일병들은 강대한 주체 조선의 절대적힘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가장 열렬한 경의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성한 우리 국가

에 대한 불치의 대결광증에 빠져 온 한해 동안 실재없는 자멸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미제와 그 특등주구들에게 심대한 충격을 준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세상이 보란듯이 과감하게 단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정부,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반미대응립장을 실천적행동으로 보여주고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과 전투적위력을 과시할데 대한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붉은기중대원들을 축하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훈련에서 높은 기동성과 신속한 공격능력을 보여준

중대의 전투력에 깊이 탄복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중대에 대한 전체 인민의 신뢰의 마음을 합쳐 뜨거운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중대가 당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과감히 실행한 군사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사수에 립하는 우리 무력의 총실성과 강경한 립장에 대한 과시이고 적의 핵으로 우리를 도발했을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고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존엄과 국권수호, 국익사수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담보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고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립전태세를 갖추는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수호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중대는 우리 국가의 주권수호, 제도사수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선 남다른 무거운 책임감을 언

제나 깊이 명심하고 전략무력의 일익을 담당할 역량으로서 자기의 전투성을 계속 제고하기 위해 분투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2붉은기중대가 그 언제나 핵전쟁억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전쟁방지와 평화수호의 성스러운 특명을 믿음직하게 관철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인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의 빛나는 명예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미더운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경보복의지와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단행

(2면에서 계속)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 518. 2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02.3km를 4, 41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전략무력의 신속반응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핵심라격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내내 고취해온 무모한 반공화국군사대결광기를 이해의 마감까지 광란적

으로 극대화하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 위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지와 절대적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위협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핵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었다.

끊임없는 국가방위력강화와 압도적인 대응은 나라의 존엄과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해 추호도 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일관하고 절대불변한 혁명방침, 투쟁기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평정할수 있게 더욱 정확하고 확실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갈것이다.

공화국의 강대성이 만천하에 과시된 2023년

2023년은 조선의 강대성이 만천하에 과시된 뜻깊은 해였다.

세기는 동방조선에서 울리는 자위적군력강화의 외성을 들으며, 공화국무력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있는 세계 최강의 핵병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8)형의 시험발사,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훈련,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작목적의 발사훈련, 주체적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 2월과 7월, 9월의 경축열병식, 핵무력건설정책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중

대사변,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성공적인 발사... 특히 얼마전에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은 온 한해 지속적으로 감행되어온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위협행위가 한해를 마감짓는 12월까지도 더욱 로골적이고 위협천한하게 극대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취한 주체조선의 강력한 경고성태중조치이며 절대적협박의 일대 과시된다.

날로 더욱 비약상승하는 공화국의 무진장강한 힘에 적대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현실은 적대세력의 오래고도 끈질긴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이 과산에 직면하였으며

승리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조선의것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올해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역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이다.

2023년의 이 특기할 사변은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탄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론리교 정 의이며 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싸움의 승패어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제원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회세의 평장의 억척같은 의지,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 비범한 예지가 이루어낸 민족사적사변이고 패자이다.

인민군대를 사상으로 이기고 도덕으로 강한 정치사상장군, 도덕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얼마전 항공절을 기념하여 조선인민군 제1공군사단 비행편대를 축하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탄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론리교 정 의이며 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싸움의 승패어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제원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아무리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압도할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비행사들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총성과 백승의 향로를님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들로, 불굴의 혁명신념을 지닌 정신적외격자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8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신 그날에도 싸움의 승패어부는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우월성에 기

인된다고, 전투마당에서 실지 필요한것은 무장장비의 수적, 기술적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우월성이라고 하시였고 해군절을 기념하여 하신 축하연설에서도 우리 해병들의 높은 사상정신, 바로 이것이 두려워 세계대양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오만무례한 침략함선집단을 우리 바다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이것을 철석같이 믿기에 우리 인민들은 변명으로 향한 생산과 건설의 동음을 줄기차게 울리고있는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뜻깊은 올해에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들을 통하여 세상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비단 최강의 절대병기들이

도도히 흘러가는 철의 흐름만이 아니었다. 자기 정도자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로 충만한 총폭탄대오의 역센 기상,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흐름을 보았다.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에 있어서 강대성과 백승의 원천으로 되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도덕장군으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의와 부정의사이의 대결이 날로 더욱 첨예화되는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대결의 불가피성으로부터 출발한 철학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국방발전전략과 핵전쟁역제력강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여오시였다.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안녕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에 의해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 주었다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날 약의 제국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당당히 맞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조선의 강대한 힘과 기상, 드센 배짱에서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불세출의 위인의 거룩한 영상을 보고있다.

참으로 절세위인을 모시고 공화국의 초강력은 밝아올 새해에 더욱 절대적진것으로 빛날것이며 그 빛을볼때의 힘에 떠날려 조선은 자기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더더욱 힘있게 펼치며 모든 적대세력들에 대한 중오도 것처럼 서리발 같으신것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안녕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에 의해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 주었다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오늘날 약의 제국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당당히 맞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조선의 강대한 힘과 기상, 드센 배짱에서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불세출의 위인의 거룩한 영상을 보고있다.

참으로 절세위인을 모시고 공화국의 초강력은 밝아올 새해에 더욱 절대적진것으로 빛날것이며 그 빛을볼때의 힘에 떠날려 조선은 자기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더더욱 힘있게 펼치며 모든 적대세력들에 대한 중오도

처럼 서리발 같으신것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머칠전이었다.

안개가 받아온 아들의 출생음을 펼치는 순간 위성이라는 이름이 나의 눈앞에 정경계 안겨왔다.

《위성...》

아들의 이름을 되뇌어보느라니 문득 얼마전 평양산원에서 체행한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날은 갓 출생한 나의 아들이 평양산원문을 나서던 날이였다.

산원에 도착한 나는 저저마다 꽃다발을 들고 산모와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보니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내 손자애의 이름은 강국이라고 지었다오. 울름은 우리도 화성거리의 새집으로 이사할 거 같았소. 나라에서 지어준 궁궐같은 새집에 들어 떠돌같은 손자애까지 보았으니 정말 경사에 경사가 겹친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나날이 좋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역군이 되라는 뜻에서 손자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나이지숙한 녀인이 자랑어린 어조로 이런 말을 하자 곁에 있던 다기차보이는 다른 녀인이 지지 않겠다듯 뒤를 다는것이였다.

《우리 집에선 손녀의 이름을 금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금별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녀인은 성수가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이번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은 힘장사재들의 어머니를 보셨겠지요? 금별달로 조국을 빛내인 세계적인 령기강자들을 돌씩이나 둔 그 어머니를 보니 어쩌나 부럽던지... 우리도

나라의 은덕에 금별의 위훈으로 보답하는 그런 자식을 두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기의 이름을...》

녀인의 말에 둘러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아들의 이름을 위성이라고 짓게 된 사연도 그들과 다름없었다.

아들에게 태어나던 바로 그날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우주만리에 떠올랐다. 하여 나는 안해와 토론 끝에 우리 조국이 우주강

랑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든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불같은 진정이 너무도 고마워 인민군사람들은 벼바다 설레이는 가을이 오자 풍년은 전야에 《복받은 대지》라는 글밭을 크게 새겼고 새로 태어나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으로 가슴을 뜨겁게 적신다.

위대한 인민이 사는 내 나라

는 제일 강하고 존엄 있어야 하며 제일 문명하고 부유해야 한다

다는 그의 드림없는 철의 신념과 열화같은 애국헌신으로 마련된 조국의 자랑찬 오늘이 그 마중오는 휘황찬

하는 현대적인 멋쟁이공장들의 준공식들과 만복이 꽃피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보여주

는 부분별진사회식들이 매일 같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더해주고 얼얼마다 밝은 웃음을 한가득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가장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누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면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으로 가슴을 뜨겁게 적신다.

위대한 인민이 사는 내 나라

는 제일 강하고 존엄 있어야 하며 제일 문명하고 부유해야 한다

다는 그의 드림없는 철의 신념과 열화같은 애국헌신으로 마련된 조국의 자랑찬 오늘이 그 마중오는 휘황찬

공화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대상들이 련이어 준공되고 도처에서 새집들이소식이 전해져 울려퍼지는 경이로다. 결속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해주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주요국영대인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안군의 드넓은 전야를 적시게 될 수백리 자연호수식물원인 황주군등물길이 준공되며 국가가 제시한 관계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였다.

머칠전에는 주체조선의 활기찬 전진기세를 과시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에너르기열약형산소열병용광로와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 준공하여 나라의 금속공업이 력동적인 발전의 새 주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의 상승곡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세포군민발전소와 평강군민발전소를 완공하여 날로 높아가는 전력문제를 해결하여서서 전일보를 안아왔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속에 선천군식료공장, 신의주말기산업사업소, 구룡평첫소주장, 사리원학생교육공장, 삼지연청년연소주장, 남포시정물분식소, 신의주방역의료품공장, 함흥수의예방약품공장, 남시축산기계공장, 황해북도과학기술도서관이 준공되거나 개건되어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를

가지는 울려퍼지는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에게 더 큰 신심과 열의를 안겨주었다.

은 나라를 수렴화, 원립화하기 위한 사업을 굳기있게 벌려나가는 속에 양강도양료장과 함경남도산림과학연구소, 황해남도산림과학연구소가 일떠섰으며 함흥청년야외극장, 평안북도승마구락부, 강원도항공구락부가 준공되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온 나라 농촌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속에 년초부터 이르는 곳마다에서 연해연방 펼쳐진 새집들이경사자 12월에도 계속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 5일 평안북도 운산군 협상농장마을이 적합한 면모를 갖추어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데 이어 함경남도 금야군 사물농장, 평양시 강남군 장교농장, 개성시 덕암농장, 평양시 려포구역 소신남새농장,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남새농장, 평양시 농촌정리위원회 배산남새농장,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현 대적이고 문화적인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들

이 새시대 농촌혁명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배부른 절감하게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사변으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펼쳐진 이 자랑찬 결실들은 줄기찬 전진과 새로운 영웅사시기를 아로새기며 평평한 미래에로 힘있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세계앞에 더욱 독특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에너르기열약형산소열병용광로와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 준공식 진행



황주군등물길 준공



운산군 담상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

아이들의 이름에 비낀 뜻을 새겨보며

국으로 솟구쳐오른 그날의 궁지를 아들의 녀에 새겨주고 싶어 위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던것이다.

내가 저도 모르게 부듯해오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맞는데 이번에는 손녀애의 이름을 은정이라 지었다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온 나라에 알려진 안변군 오계리에 사는 나이의 아들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눈앞에 안변군 오계리에 펼쳐졌던 가슴뜨거운 화폭이 다시금 안겨왔다.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환포기환포기의 곡식이 그 리도 소중하지는 않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재해복구 사업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자연의 피해를 가셔낸 이 지대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축복해주신던 그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들으며 그들이 나누는 감격의 눈물을 겹겹이 못하던 오계리와 월

나갈이 뜻이 깊군요. 하두 좋은 세월이나 아이들의 이름들도 평범할수가 없지요. ...》

앞서 이야기한 강국이 할머니가 생각에 잠겨 나직이 외우운 메아리를 일으켰다.

참으로 울은 말이였다.

청년이 한해에 레사리가 흘러간 날들이 하루라도 있었는가.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새해의 문을 연 우리 공화국이였다.

그 웃음과 미래를 엮던 담보해줄 주체병기들이 하늘땅을 뒤트는 위용으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에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회한할 민립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황금나라 설레이는 전야마다에서는 우리가 만든 농기계의 동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보다 부강하고 문명해질 레일을 그려보게

레이이 아닌가.

그 가슴 벅찬 오늘과 레일이 이 땅에 태어나는 후대들의 이름에 비껴갔다.

출생중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저들 외워보는 나의 귀전에 산원을 나서는 아이들과 산모들을 맞던 사람들의 환희로운 목소리들이 다시금 들려왔다. 아이들의 뜻깊은 이름을 정다며 부르며 저마끔 달려가 반겨맞던 그들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들이...

위성, 강국, 금별, 은정... 마치 그 부름의 의미를 알기나 하는듯 갖난이들의 얼굴마다에 그려진 천진란만한 미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잊을수 없는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가 저물어간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또 어떤 휘황찬란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것인가.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좋은 이름들이 지어지게 될것인가.

조정협

머칠전이었다.

안개가 받아온 아들의 출생음을 펼치는 순간 위성이라는 이름이 나의 눈앞에 정경계 안겨왔다.

《위성...》

아들의 이름을 되뇌어보느라니 문득 얼마전 평양산원에서 체행한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날은 갓 출생한 나의 아들이 평양산원문을 나서던 날이였다.

산원에 도착한 나는 저저마다 꽃다발을 들고 산모와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보니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내 손자애의 이름은 강국이라고 지었다오. 울름은 우리도 화성거리의 새집으로 이사할 거 같았소. 나라에서 지어준 궁궐같은 새집에 들어 떠돌같은 손자애까지 보았으니 정말 경사에 경사가 겹친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나날이 좋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역군이 되라는 뜻에서 손자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나이지숙한 녀인이 자랑어린 어조로 이런 말을 하자 곁에 있던 다기차보이는 다른 녀인이 지지 않겠다듯 뒤를 다는것이였다.

《우리 집에선 손녀의 이름을 금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금별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녀인은 성수가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이번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은 힘장사재들의 어머니를 보셨겠지요? 금별달로 조국을 빛내인 세계적인 령기강자들을 돌씩이나 둔 그 어머니를 보니 어쩌나 부럽던지... 우리도

날로 늘어나는 변혁적실체들

공화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대상들이 련이어 준공되고 도처에서 새집들이소식이 전해져 울려퍼지는 경이로다. 결속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해주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주요국영대인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안군의 드넓은 전야를 적시게 될 수백리 자연호수식물원인 황주군등물길이 준공되며 국가가 제시한 관계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였다.

머칠전에는 주체조선의 활기찬 전진기세를 과시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에너르기열약형산소열병용광로와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 준공하여 나라의 금속공업이 력동적인 발전의 새 주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의 상승곡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세포군민발전소와 평강군민발전소를 완공하여 날로 높아가는 전력문제를 해결하여서서 전일보를 안아왔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속에 선천군식료공장, 신의주말기산업사업소, 구룡평첫소주장, 사리원학생교육공장, 삼지연청년연소주장, 남포시정물분식소, 신의주방역의료품공장, 함흥수의예방약품공장, 남시축산기계공장, 황해북도과학기술도서관이 준공되거나 개건되어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를

가지는 울려퍼지는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에게 더 큰 신심과 열의를 안겨주었다.

은 나라를 수렴화, 원립화하기 위한 사업을 굳기있게 벌려나가는 속에 양강도양료장과 함경남도산림과학연구소, 황해남도산림과학연구소가 일떠섰으며 함흥청년야외극장, 평안북도승마구락부, 강원도항공구락부가 준공되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온 나라 농촌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속에 년초부터 이르는 곳마다에서 연해연방 펼쳐진 새집들이경사자 12월에도 계속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 5일 평안북도 운산군 협상농장마을이 적합한 면모를 갖추어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데 이어 함경남도 금야군 사물농장, 평양시 강남군 장교농장, 개성시 덕암농장, 평양시 려포구역 소신남새농장,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남새농장, 평양시 농촌정리위원회 배산남새농장,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현 대적이고 문화적인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들

이 새시대 농촌혁명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배부른 절감하게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사변으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펼쳐진 이 자랑찬 결실들은 줄기찬 전진과 새로운 영웅사시기를 아로새기며 평평한 미래에로 힘있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세계앞에 더욱 독특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한 보람찬 한해

- 윤희섭 교육성 국장과 나눈 대담 -



을 비롯한 중·고등학교에서 연구·개발·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은 현실성있게 세운대기 조하여 여러 학과를 일류학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평양건축대학교 평양기계대학교,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에서도 교수관리제도를 혁신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들이 실행되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교육수단들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요소와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데로 교육구조개선이 지향되었다.

초·중·고등교육부문의 교육구조를 일반기초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도 할수 있게 고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중·고등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여 누구나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분과, 리과, 예능, 기술분야 등의 교육을 합리적으로 주기 위한 사업과 기술 고급중학교(기술반), 고급중

학교 기술반들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박력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피복, 봉사, 로리, 산업기술, 물건기재, 전자공학부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학과들이 새로 나왔으며 해당 전문과목교과서들과 시험실습기재들을 공급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르고 있다.

기자: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국장: 올해에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에서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 있도록 학과목들을 바로 선정하고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지식과 능력의 범위, 수준을 교종별, 과목별로 과학적으로 정하였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분야의 일반기초지식을 주는데 기본을 두면서 과목들의 체계성, 순차성, 련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수내용을 혁신해나가고 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도 학생들이 충고한 정신도덕적품성과 첨단 및 경제과학지식, 실천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부단히 갱신해나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어

산지식과 실천능력을 습득할수 있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개선을 가져왔다.

초·중 및 중등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알기 쉽고 재미나게 원리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도 학생들의 인식능력, 실천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교수형식과 교육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올해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교육연구원이 나라의 교육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자문기관답게 훌륭한 꾸러짐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제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교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교 사관학교, 신의주공립대학건설, 회천공업대학 체육관건설,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기숙사건설이 완공되었으며 각지에서 수많은 학교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리고 해당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한단계 높였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새해에도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가리켜 시인, 작가라고 정담아 부르고 있다.

결코 내가 남달리 시를 사랑하고 또 많은 시들을 써내고있기때문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뜨겁게 안아주는 은혜로운 품속에서 삶의 희망을 꽃피우며 복된 삶을 누리려는 나를 추복해주는 뜨거운 진정이 담긴 부름이다.

지금도 때로 내가 쓴 부귀두려운 수십권의 습작들과 여러권의 작품집들,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문학상장과 표창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릿가락 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신세상장으로 하여 두다리와 한팔을 쓰지 못하는 나였다.

그러한 나에게 또 꿈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꿈, 다른 아이들과 뛰노는 꿈, 동무들앞에서 내가 지은 시를 읊는 꿈이었다. 꿈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른다.

하나 그것은 이룰수 없는 꿈이 아니었다.

어머니조국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로 불러주었고 그들과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내가 품고있던 꿈은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이루어진 소중한 꿈

도움으로 실화 《나의 동무들》을 창작하여 발표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주의교육제발표기념 전국글작품현상모집경연에 두 고된 나의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었다.

꿈만 같았다.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아동문학상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학상을 수여받았다.

나라에서는 나의 문학적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꿈과 희망을 더 활짝 꽃피게 하고 나를 조선장예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화려한 무대에 올라 내가 쓴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축하의 꽃다발과 만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신세상장으로 첫걸음마도 뻐수 없었던 나에게 생의 활력을 주고 삶의 보람과 희열을 안겨준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변함없이 더해만지는 국가적해묵에 앞장선 나는 김형직사범대학 원격교육학부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 군인도 아니고 위훈을 세운 공로자도 아닌 평범한 장에 불과한 나를 이렇듯 아

껴주고 내세워주는 그 품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자본주의사회 같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버림받으며 불우한 삶을 속명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장애자들의 운명이다.

하나 은혜로운 조국의 품,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품이 있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장애자들이다.

나는 얼마전 내가 창작한 서정시 《나의 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 그 길은 장애자라는 말보다 이 나라의 공민이라는 뜻만한 부름으로 인생이 빛나도록 아픈 자식 치마폭에 더 따뜻한 감싸주는 어머니의 손길로 열여준 행복의 길이었거니

자식의 소원이란 저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주고 바라는 모든 꿈 이루어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시작되고 끝없이 펼쳐진 나의 인생 길이어라

내 어찌 한생을 업혀서만 가라

두다리가 없다고 보답의 길 못걸리라 잘나도 못나도 천만자식 모두 안아 보람찬 삶의 결을 걸음 이끌어주는 은혜로운 그 품을 이 심장의 노래로 빛내이며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사랑의 그 길을 땀땀이 걸리라 영원히 따르리라!

그렇다.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안아주고 보살피주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시인으로, 작가로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는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비록 걷지는 못해도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기쁨과 랑만속에 사는 나를 어찌 장애자라고만 부르랴.

우리 장애자들을 따듯이 보살피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로운 그 품을 떠나 한시도 못산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작품창작으로 랑홍색국기아래 빛나는 우리모두의 복받은 삶, 사람들도 다 친형제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상에 대고 목청껏 구가하였다.

조선장예자예술협회 리국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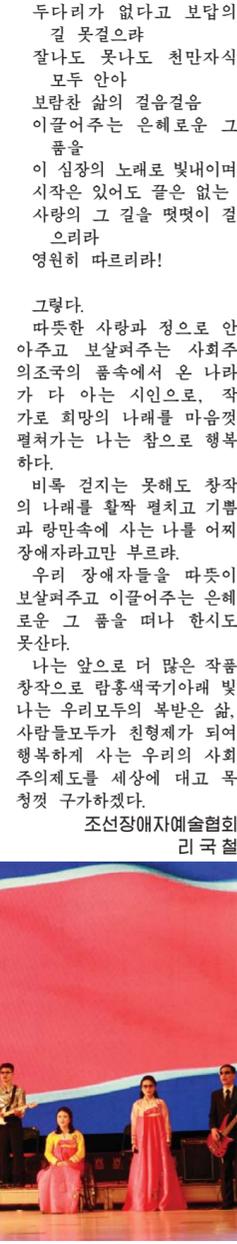
다른 아이들처럼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꿈, 다른 아이들과 뛰노는 꿈, 동무들앞에서 내가 지은 시를 읊는 꿈이었다. 꿈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른다.

하나 그것은 이룰수 없는 꿈이 아니었다.

어머니조국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로 불러주었고 그들과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내가 품고있던 꿈은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심장의 고백

인민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야기들이 끊없이 꽃피고나고 있다.

며칠전 삼지연시건설장에서 돌아온 나는 중학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집으로 늦게나마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찾아갔다.

꽃다발의 주인은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가했던 친구의 어머니였다.

언제나 찾아가면 제 자식처럼 각근히 대해주던 친구의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나는 축하의 인사를 하였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고맙네. 지금도... 나는 믿지 못하겠네. 내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신 대회에 참가하고 또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다니. 그리고 분에 넘치는 선물까지... 지금도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애. 꿈만 같다니가?》

꿈만 같다!

어머니가 저를 외우는 이 말이 나에게 일으킨 충격은 컸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장에서 어머니들에게 따듯하고 진정넘친 인사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솟구쳐오르는 격정으로 눈물을 적시는 우리들이다. 하물며 뜻깊은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뵈우고 하물같은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친구의 어머니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어려운 세월에도 아들, 딸, 며느리를 모두 교단에 내세우고 그들이 주저앉을세라 힘겨울세라 당의 참된 교육전사로 살도록 진함없는 헌신을 바쳐오면서 자기에게 그렇듯 크나큰 사랑과 영광이 차례질줄 미처 생각 못했던 녀인이었다.

마음속에 묻어둔 오만가지 격정으로 남몰래 애틀 태우며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사려깊이 헤아려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

을 따라 애국의 한길을 곳곳이 걸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백을 목매어 더치는 심장의 고백들이다.

그들의 이 고백은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뜨거운 격정의 분출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수도, 들을수도 없는 격동의 목소리들이다.

아,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래우고 격정에 울게 하는 은정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치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앞으로 세대의 가슴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무수히 꽃피어 날것이며 그와 더불어 절세위인, 자애로운 아버기를 우리러 더치는 천만인민의 고마움의 목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이다.

리철준

오늘 《물질문명》을 떠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한층도 안되는 특권층이 억만금을 뿌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사치와 향락에 물젖어있을 때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삶의 희망을 잃고 몸부림치고 있다.

세계최악의 인권보호지나 피뢰지역의 실태도 다름없었다.

살림문제만 놓고보더라도 극소수 특권층들이 여러채의 호화주택들을 독차지하고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있지만 근로대중은 세방이나 폭방, 비닐집, 판자집, 짐함, 움막 등 집 아닌 《집》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드는 바람에 일대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앞으로 세대의 가슴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무수히 꽃피어 날것이며 그와 더불어 절세위인, 자애로운 아버기를 우리러 더치는 천만인민의 고마움의 목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이다.

리철준

간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매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고있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하지만 공화국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 같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버림받고 짓밟혔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와 려명거리, 송화거리, 화성거리와 같은 사회주의변화, 사회주의선경거리들의 훌륭한 살

인민을 위한 세상과 특권층을 위한 세상

립집들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제가 하는 일이란 직기를 돌리는것뿐입니다. 평범한 직포공이 호화주택의 주인이 된 이 꿈같은 현실이야말로 인민을 하느님처럼 떠받치는 우리 나라에서만 체험날수 있는 인민사랑의 전설입니다.》

《로동당시대에 평범한 의로일 군인 저와 같은 근로자들이 돈한푼 안들이고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는 새 전설이 태어났으니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제가 영예군인이라고 늘 우대해주고 보살피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활에서 불행이라도 있을세라 송화거리 새살림집의 입사증을 안겨주고 살림집의 층수까지 헤아려주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적인 살림집을 나라에서 평범한 로동자인 저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었으니 사회주의 내 조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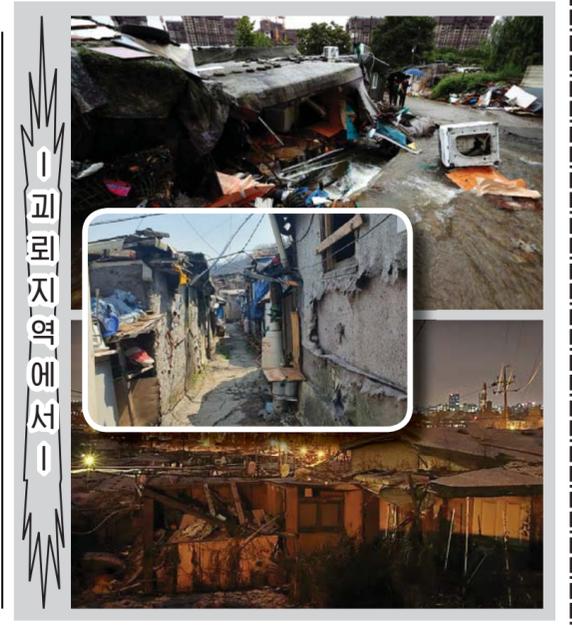
진정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존엄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한 외국의 인사는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기울이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 어디서나 일떠서는 살림집들에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평범한 공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이사집을 풀고있다. 진정 조선은 인민을 위한 참세상이다.》

현실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 참다운 삶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진정한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동해의 물결우에 울려 퍼진 사랑의 배고동소리

1959년 12월 14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000명의 귀국동포들을 태운 첫 귀국선이 험한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일본의 니가타항을 출발하였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60여년전 동해의 물결우에 울려 퍼진 그 배고동소리를 잊지 못하며 절세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동포애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나라없던 지난날 바람세찬 이역땅에 끌려와 비참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던 재일동포들에게 1945년 8월의 조국해방소식은 꿈에도 바라던 귀국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가랑잎같은 작은 어선과 지어 도람들로 만든 배우에 몸을 실어서라도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재일동포들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우끼시마루》 폭침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재일동포들의 귀국길에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피눈물나는 이국살이와 결별하지 못하고 일본땅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국땅에서 동포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2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에서 우리 민족은 밀지 않은 장래에 민주국가를 이룩할 것이며 그때에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아보아줄 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있어서 재일동포들은 언제나 우리 조국인민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한겨레였고 혈육이었다.

주체44(1955)년 9월 조국을



청진항에 도착한 제 1차 귀국선 (1959년 12월)

방문한 조국해방 10돐경축 제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재일동포들을 오그랑수를 다 쓰며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협정조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면서 지연책동에 매달릴 때에도 이를 짓부시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어찌 이뿐이랴.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내각전위원회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일본당국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며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협정조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면서 지연책동에 매달릴 때에도 이를 짓부시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어찌 이뿐이랴.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내각전위원회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일본당국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며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협정조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면서 지연책동에 매달릴 때에도 이를 짓부시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열어 주신 귀국의 배길에 의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의 기쁨과 감격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동포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을뿐 아니라 더 많은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기 위하여 귀국선 《만경봉》호도 마련해 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를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서는 일본당국의 책동으로 귀국사업이 중단되었던 때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있고 귀국희망자가 있는한 귀국사업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하시고 귀국재개를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3년나 중단되었던 귀국의 배길을 이어주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 주신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은 재일동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보금자리와 참다운 새 생활을 마련해 준 광명의 길이었으며 그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장

조적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 영광의 길이었다. 그 귀국의 배길에 있어 차디찬 이역땅에서 버림받던 인생들이 공화국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예술가로, 로력혁신자로 복반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의 손길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역사적서한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친의용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며 동포들의 자존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신속 실행해 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재일동포들은 누구나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원과 총련의 애국사업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60여년전 손과 손에 공화국기발을 쥐고 귀국선에 올랐던 귀국동포들은 이야기한다.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라야 진정한 조국도 있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개인의 운명은 물론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밝고 창창하다고.

오늘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승하며 자애로운 아버지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펼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도시건설도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지휘처에 도시설계인민들을 부르시었다.

전후복구건설준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설계가들이 전선은 넘겨받지 말고 이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야만적폭력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를 복구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현대적문명생활에 적합하며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건설하는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현대적문명생활에 적합하며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도시를 건설하려면 다른 나라의 도시건설을 그대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었다.

계속하시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현실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정신을 살리면서 오늘 우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품과 생활감정에 맞게 그리고 쓸모있고 보기 좋으며 튼튼하게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시었다.

—우선 도시에 주택과 편

의봉사시설, 문화시설과 공공건물, 도로를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잘 배치하며 녹지를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살며 일할 모든 건축물들에 채광, 통풍, 난방조건을 충분히 예견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철수복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를 복구건설하는데서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축물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건설할수 있도록 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면서 선을 하나 굵거나 점을 하나 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금과 자재, 로력을 적게 들고 건축물들을 더 많이, 더 잘 건설하였는가 하는것부터 먼저 타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복구건설에서 건물기초의 동결심도와 큰물, 태풍, 지진의 피해 그리고 진정피해 등 고려해야 할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유사시에도 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평양시를 웅장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복구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의 중심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도시중심부를 바로 정해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잘 도모할수 있으며 도시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고 도시를 전방성있게 건설해나갈수 있다. ...

설계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걱정의 파도가 출렁이었고 심장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번졌다.

그것은 종래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한 완전히 새로운 변혁이었으며 현대적인 새 도시의 탄생이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희에 넘쳐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었다.

《나는 동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훌륭히 작성할것을 바랍니다.》

《장군님, 힘껏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평양시복구건설방향을 구체적으로 받아안은 설계인민들의 가슴은 환없이 설레이고 부풀어올랐으며 수령님의 의도로도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잘 만들어 그리게 기쁨을 드릴 일일이 새차례 용솨솨했다.

그러하여 설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통일산기공의 안전진공에 자리를 잡고 설계용지와 도색재료 등 설계에 필요한 온갖 물자와 조건을 다 보장받으며 평양시전후복구건설총계획도작성에 착수하였다.

본사기자 김철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서

은혜로운 품속에서 삶을 빛내인 소설가 (1)



박원선 선생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과 더불어 우리 민족문학사에 새겨진 바래원! 《갑오농민전쟁》 제3부에 바래원, 권영희 두 이름이 씌여져있다.

권영희. 그는 바래원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였던 그의 안배이다.

태양의 손길아래 참된 인간의 역사를 찾아 보람찬 삶의 자욱을 아로새긴 바래원 그 의 안배의 인생행로는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망국의 호곡이 터져왔던 을사년의 그날로부터 4년째 되던 해에 서울거리의 한 집안에서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고고성이 울려나왔다.

빨간 주먹을 귀엽게 내저으며 마치 방안에 묵배인 고리악방새에 취한듯 뺨그레 웃고있는 그 아기가 바로 후날 우리 문학사에 큰 자욱을 남긴 력사소설가 바래원이었다.

약제사였던 아버지의 덕에 려엄정직직처럼 빈손을 빨지 않았지만 왜놈들의 계략소리에 이마살을 쪼그리면서 성장한 바래원은 자식의 번성한 장래를 원하는 부친의 엄한 훈계로 일본의 법정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망국노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들뜨기마련인 굴욕적인 민족적모욕과 가중되는 학비난으로 하여 그는 중도에서 사각모를 벗고 말았다.

대학생복에 묻은 십나라의 먼지를 아무런 미련없이 털어버리고 서울로 돌아온 바래원은 피로위하는 아버지의 눈총을 뒤집듯이 받으며 원고지를 꺼내들었다.

14살때인 보통학교시절에 쓴 《입학》이라는 작품의 호평으로 문학에 대한 아홉 호기심을 가졌던 바래원은 1930년 잡지 《신생》 10월호에 첫 단편소설 《수염》을 발표하였으며 24살 나던 해인 1933년에 문학친목단체인 《9인회》의 한사람으로 활동하면서 왕성한 정력으로 붓을 달랐다.

1935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어 문단의 호평을 받은 그의 첫 장편소설 《청춘술》으로 하여 그는 중견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으며 여러 장편소설들을 려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르조야문단에서는 찬사를 받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서는 별로 좋은 반향이 없었던, 오히려 려당 한 자기의 작품창작에 대해 그는 점차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중소부르조야계급이나 사

람들의 저조한 생활세대를 자언주적으로 그린 《순수문학》의 그들이 절제 비껴있었던 그의 문학세계는 해방을 전후하여 뚜렷이 심각한 려사적사건을 겪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견고히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물려 없었다.

차츰 질어가는 번민속에서 그는 이웃나라의 려사소설과 민족고전들을 번역하고 또 직접 려사소설들을 쓰면서 새 길을 모색하게 시작하였다.

그의 려사소설창작에 하나의 이정표로 된것은 흥명회의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이었다.

당시 인기가 대단했던 《림격정》을 며칠밤을 새우며 다 읽어버린 그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평한 한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뒤져 지난날 자기가 썼던 장편소설들을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의 창작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지향을 외면한 채 《순수문학》의 상아탑속에서 공자 왈, 맹자 왈 하고있었다는것을 통렬히 느끼었다.

작가라면 마땅히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작품을 써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애독될것이다.

다음순간 그의 가슴속에서 한가지 결심이 석고처럼 굳어졌다.

(이제라도 흥명회선생처럼 한 민족의 려사를 떠돌인 인민들을 보여주는 려사소설을 쓰자. 이 길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사는 길이며 참된 문인이 되는 길이다!)

결국 일생동안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기쁘게도 해준 그의 인생표도는 누가 실을 뽏뽏 소설들을 줄줄이 써내던 20대가 아니라 40대에 이르러서야 굳어졌던 것이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려사소설창작에 달라붙어 얼마후에는 장편력사소설 《임진왜란》을 신문에 발표하였지만 또다시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소용돌이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림격정》과 같은 려사소설을 쓰리라 결심만은 꺾지 않았다.

력사소설가로, 참된 애국자로 살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후날 웅장한 결실을 가져왔다.

바위를 갈고갈아 바늘을 만들만큼 꾸준했던 그는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1965년에 장편력사소설 《계명산천》 제1부를 창작발표하였다.

소설에 대한 문단과 독자

들의 반응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바래원은 처음으로 웃었다.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날 바래원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존경해오던 흥명회선생으로부터 파란색 찬사가 적힌 편지를 받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듯 아픈 눈을 비비면서 편지를 두번세번 읽었다.

며칠후 안해와 함께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사임하고있던 흥명회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흥명회선생은 그날 자기는 서울에서 많은 려사자료들을 볼수 있어 《림격정》을 쓰기 쉬웠는데 정점으로 자료들이 다 없어진 지금 동무는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쓸수 있었는가 하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바래원은 그저 어쩔 수 없었을뿐이었다.

물론 우의 이야기는 작가가 서울에서 《임진왜란》의 실재로 골머리를 앓고있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있는 일이었다.

본사기자

조세선 4반 1도차의 전평국화집회를 위진한행

얼마전 총련의 각지 인민들과 동포들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제4차 전국집회가 오키나와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일본 각지 조일우호단체와 려대성단체 대표들을 비롯하여 각계의 인사들도 참가하였다.

집회에 앞서 간도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에 즈음하여 새로 제작된 영상편집물상영이 있었다. 집회에서 먼저 발언한 실행위원장은 일본이 불법적인 조선침략과 그로 인한 학살의 려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또다시 제침의 길로 돌출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아직도 진정한 주권국가로 되지 못하고있다. 우리자신이 들고일어날 때 평화로운 미래를 개척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총련중앙 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의 발언이 있었다.

발언에서 그는 조선전쟁정형체결 70년을 맞이한 오늘날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미일피뢰함동군사연습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책동이라는 데

해 언급하고 미국과 그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민중이 려대하여 미국과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침책동을 반대하여 즐기는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지바, 시즈오카 등 여러 지역에서 온 각계층 대표들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정부는 조선의 정찰위성발사를 절고들며 《북조선의 위협》을 고취하지만 조선이야말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책동으로 하여 위협을 받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역내에서의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집회마감에 오키나와에서의 미군기지철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행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수 없다.》,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한이 있더라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

이것은 윤석열역도가 세벌인 친일말발중의 일부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친년

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십나라것들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떠들고있

다고 들고나오고있는가 하면 왜나라것들의 핵우연수방류책동도 묵인두둔하고있다. 지어 역적패당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레나 만나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쓸개배진 행위를 한것은 역도의 친일사대근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대매국행위는 저들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지금 피외지역에서는 윤석열이 일본에 머리를 조아

적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만 맞는 윤석열의 강통외교, 예측외교, 왕복외교를 민중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석열은 그자체가 백해무익한 핵우연수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울사오적들도 무색케 할 친일사대매국행위를 거리낌없이 일삼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같은 만고역적이 살아숨쉬는것자체가 비극이다. 제2의 리완용으로 지탄받고있는 친일역적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에게 차레질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림광훈



최악의 려사는 감출수 없다

용서받을수 없는 특등친일매국노

는것이다. 일본군순노예범죄와 강제징용범죄 등 과거의 침략력사와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는 십나라것들에게 아무굴종하라는 일본을 대신하여 저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

고 발광하는 십나라것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제가동시기기로 하고 합동군사연습까지 빈번히 벌리면서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울헤어만도 일본수상 기사다와 여러 차

천년속죄과 손을 잡고서라도 민심의 버림을 받고 끊어져가는 명줄을 부지하고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하자 이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속심이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친일사

리고 불법식민지 지배와 학살, 학살의 려사를 묵인하며 구결외교를 일삼지만 받은것은 무엇인가, 윤석열역도가 대동경인가, 일본에 굴종하는 윤석열은 리완용보다 더한 친하

제14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장을 찾아서

《전시된 상품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어느것부터 사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명제품, 명상품들이다.》...

제14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장을 찾은 관람자들은 경공업제품들과 소비품들이 가득찬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련포는실농장에서 생산한 보기도 먹음직스러운 도마도와 검은사자고추, 오이였다. 이곳 온실농장의 한 일꾼은

경쟁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련포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남새가 신선하고 그 맛이 하도 좋아 참관자들이 저마다 요구한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수많은 참관자들로 붐빈 전시대에는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한 송도원종합식품공장의 전시대도 있었다.

출인젓기름사랑, 치즈과자, 호두강정, 과일단묵, 유유구립검단설기를 비롯한 당과류들과 여러가지 빵류, 소고기 맛죽석곡수 등 많은 상품들이 출품한 이곳 전시대로는

참관자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와 그 수요를 미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유아종합식품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레몬향크림과자를 비롯한 식료품들을 출품하여 이목을 끌었다.

또한 대동강과일종합식품공장에서 새로 만든 나노이 포함된 기능성과일단묵, 합용기초식품공장의 마늘고추장과 깨고추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내놓은 가루식초,

통성고기가공공장에서 출품한 각종 햄과 팔바삭, 젓제품들도 수요가 높았다.

이 단위를만이 아니었다. 평성은과산가방분공장에서 기호품의 특색을 살려 만든 다종다양한 너성용돌가방과 손가방, 벨가방과 러용용가방들이 인기를 모을 때 대동강구역공업종합상점 리용생산반의 명편이 붙어있는 전시대에도 갖가지 색깔의 포근한 이불제품들이 딱 차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호하게 하였다.

우리는 평양대성보석가공공

장의 전시대도 둘러보았는데 신선로와 주전자, 국수쟁반, 수저를 비롯한 농제품들은 민족적정서가 풍기면서도 황금빛으로 번쩍거리 눈이 부실 정도였다.

한편 유품기념품사업소에서 제작한 국기와 국장장식, 마차장식, 불장식을 형상한 타조알공예품들은 세공기술이 너무나 세련되어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신발, 피복, 화장품, 가정용품, 기호품, 의복기구와 의약품들도 자체로 개발한 국내산제품들이었다.

참관자들은 다종다양하고 현대적미감이 내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면서 질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지만 우리의 것이여서 그런지 더 사랑이 가고 믿음도 간다며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해마다 진행되지만 그 규모와 제품의 가치수, 질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성장하여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국제력기계를 뒤흔든 조선선수들

— 2023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 —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체조선수들이 얼마전에 진행된 2023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도 또다시 놀라운 실력을 과시하여 세계의 초점을 모았다.

까라르의 도하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스를 비롯한 9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 선수들이 모여들어 참가하여 치열한 승부를 겨루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리수연선수는 여자 64kg급 경기에 출전하여 폭발적인 힘으로 끌어올리기에 114kg, 추켜올리기에 146kg(세계신기록)을 들어올림으로써 각각 제1위를 하였으며 종합 260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여자 71kg급경기에 출전한 송국향선수는 끌어올리기에 120kg, 추켜올리기에 149kg를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69kg의 성적으로, 남자 81kg급경기에 리정승선수는 끌어올리기에 165kg, 추켜올리기에 209kg를 성공시키고 종합 374kg의 성적으로 각각 제1위를 하였다.

또한 방은철선수와 원현심선수, 정춘희선수들은 맞대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부종목과 종합에서 각각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박명진, 리민주선수들도 경기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끌어올리기에 동메달을 받았으며 리성경, 강현경 선수들도 추켜올리기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

록하였다.

여자 55kg급경기에 출전한 리수연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켜올리기에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림은심선수와 김일정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2위를 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공화국 선수들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 도합 4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나라 및 지역별메달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차지하고 남, 녀단체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특기할 사변들과 기적들로 충만된 올해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백자제조술

백자제조술은 순결하고 깨끗하며 고상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민족성을 반영하여 흰색의 자기를 구워내는 전통적인 도자공예기술이다.

백자의 원료가 풍부한 조선에서는 자기제조기술이 발전하여 고려시대부터 청자기와 함께 백자기도 많이 만들어 세계도자발전사의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백자는 원료의 순도와 소성온도에 따라 회백, 청백, 유백색의 미묘한 색변화가 있으며 장식과 안료에 따라 청화백자, 석간주백자, 화강장식백자, 진홍백자, 장식기법에 따라 새김장식백자, 상회장식백자 등으로 구분한다.

백자는 12세기에 수법이 더 발전되어 조선분강장조성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16세기말까지 순백자기가, 17세기~18세기 초에는 청화백자, 진홍백자, 석간주백자 등이 제작되었다.

백자제조술은 순결하고 깨끗하며 고상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민족성을 반영하여 흰색의 자기를 구워내는 전통적인 도자공예기술이다.

백자의 원료가 풍부한 조선에서는 자기제조기술이 발전하여 고려시대부터 청자기와 함께 백자기도 많이 만들어 세계도자발전사의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백자는 원료의 순도와 소성온도에 따라 회백, 청백, 유백색의 미묘한 색변화가 있으며 장식과 안료에 따라 청화백자, 석간주백자, 화강장식백자, 진홍백자, 장식기법에 따라 새김장식백자, 상회장식백자 등으로 구분한다.

백자는 12세기에 수법이 더 발전되어 조선분강장조성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16세기말까지 순백자기가, 17세기~18세기 초에는 청화백자, 진홍백자, 석간주백자 등이 제작되었다.

18세기~19세기말엽까지 청화백자가 특별히 발전하였는데 그 종류와 그림장식의 주제가 보다 다양해지고 예술적향상도 세련되었다.

《청화백자도문집시》, 《청화백자자학문항아리》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현대에 와서도 백자기는 높은 평을 향고있다.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재능이 깃들여있는 백자의 전통적인 기법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 꽃병, 사발, 단지류제작에 많이 이용되고있다.

10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백자제조술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온 나라에 풍기는 《분향기》

공화국의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질 좋고 향긋한 《분향기》 화장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분향기》 화장품에는 개성고려인상에서 추출한 주요성분과 함께 로화방지제로 유명한 불로초배양액, 히알루론산을 비롯한 기능성물질들, 감초, 등굴메, 살구씨



등 수십가지 천연약재들의 유효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다.

이 화장품은 피부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주름개선, 보습효과가 뛰어나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도록 하여주며 눈에 띄는 피부보호 및 기능강화작용도 나타낸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살결물, 크림, 물크림, 영양액 등은 얼굴을 맑게 하고 검버섯과 여드름을 없애며 자외선과 노화를 방지하고 동상과 화상, 탈모증을 없앤다.

최근에도 공장에서는 천연염색제, 염색샴푸, 겔고착제, 비듬제거액, 머리크림, 머리칼영양제, 머리칼성장제, 머리기름 등 다종다양하고 기능성이 높은 머리칼용화장품들과 입술보호연지, 눈섀임필을 비롯한 분향용화장품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눈주름미안막, 얼굴세척제와 홍반, 물집 등과 같은 증상을 제거하는 에기피부염크림, 피부색을 자연스럽게 하여주는 피부용화장품들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일터에 넘치는 《분향기》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로 그윽하게 풍기고 있다.

본사기자

민속명절 — 동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1월을 동지날, 이달에 밤이 제일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날로 일러왔고 이날을 작은설이라고 하면서 뜻깊게 쇠어왔다.

이날엔 어느 집에서나 팔죽을 쑤어먹었다.

지난날 팔죽은 어느때에도 쑤어먹곤 하였으나 동지날에 쑤지 않는 음식으로 되어있었다.

이렇게 동지날에 쑤어먹는 팔죽을 《동지죽》 또는 《동지팔죽》이라고 하였다. 동지팔죽에서 오그람이는 참쌀가루, 찰수수가루로 만든다.

동지가 음력 11월초순에 들면 동지라고 하였는데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해에 동지가 들면 아이들 좋아했고 로동지가 들면 로인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이것은 동지날에 작은 설이라고 하여 누구나 한살씩 더 먹는데 어린이들은 키가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동지가 며칠간이라도 빨리 들면 좋은것으로 보았고 로인들은 늦게 들면 그만큼 오래 살게 된다고 생각한데로 부터 생겨난 말이다.

또한 애동지가 드는 해에는 겨울이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에는 춥지 않다는 말도 전해지고있다.

올해의 동지날은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마로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는 안마 방법은 우선 엄지손가락과 두번째손가락을 교차한 양쪽에 대고 열감이 있을 때까지 아래위로 비빈다.

코날개의 맨 끝끝에 영양원이 위치하고있는데 두번째손가락끝으로 영양원을 2~3분동안 문지른다.

다음 양쪽가운데손가락 끝으로 풍지혈(풍지혈은 뒤목근육 양쪽옆머리칼변두리의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하고있음)을 약간 세게 누르면서 문지른다.

그다음 뼈마디가 새큰해 크고 아픈감이 있을 때 인종혈(인종혈은 코와 입사이의 중심에 위치하고있음)을 지압하면 효과가 좋다.

두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르는것도 감기에방해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손바닥의 엄지손가락아래 부위 즉 근육이 볼록 두드러져나온 어깨뉘부위는 호흡기관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그러므로 매일 어깨뉘부위를 비벼주면 자주 감기에 걸리는 체질의 사람들에게 좋을뿐 아니라 목구멍이 아프고 재채기가 나는 등 감기의 초기증상때 효과적이다.

손바닥을 문지르는 방법은 두손을 맞대고 손에 열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이때 한손은 고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문지른다. 일반적으로 약 1~2분동안 문지르면 손바닥에 열이 난다.

이렇게 열이 나면 어깨뉘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므로 이와 연관되어있는 웃웃길의 생리적이능과 면역력이 강해지게 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민간설화

닭알이 송아지로 되는 리치(2)

글 윤성배, 그림 채대성

그는 보통벌의 많지 않은 돈덕진 땅을 얼마간 가지고 있는자로서 곧잘 리치소리를 하여 이 부근의 사람들은 그를 《리치명랑》 혹은 《강리치》라고 불렀다.

김선달이 이사질을 싣고 온 날 《리치명랑》은 이웃에 새로 온자가 앞으로 제 소를 돌 볼라 쫓매면 연기가마신 고양이상통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동마는동하였는데 그제 어디 사람의 리치가 맞는가 말일세.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니 나와 웃사람이 있구야 아래 사람도 태어나는 법인데 제가 뭐 웃사람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나? 개천에서 아무 마런도 없이 불쑥 솟아났겠나?

웃사람이 뭐 좀 부락하면 혼연하게 대답하고 그대로 하는게 사람의 리치인데 그자는 노상 제부동해서 말대답질이란 말이야. 내가 그자에 게 뭐 좀 도움을 주려다가도 그 꼴을 보고야 마음이 동할게 뭐가?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지요. 속담에도 있듯이 가

리는 높이로군. 저놈이 제 멋대로 리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자면 두근두근 가슴을 쫓으며 원망할 리치를 만들어내야 하겠군.

이런 생각을 가다듬는 김선달에 집에는 황소와 암탉 두마리가 있었고 강지주네 집에는 살진 암소와 싸움 잘하는 수탉이 있었다.

늘 외지에 떠돌아다니며 농사일을 마누라에게 맡겨 놓은 김선달이라 자기대신 황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마린

리치 꿀밭을 찾아다니는탓에 소도 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밭갈이때가 되자 강지주가 김선달을 찾아왔다.

그에게는 소작준 외에 자기 부치는 땅도 있었던것이다.

《여보게 선달이, 오늘부터 우리 밭을 갈아주겠는데 자네네 황소를 좀 빌려주게나. 우리 집에도 소가 없기는 하지만 밭갈이에는 쓸모가 없디네. 사람의 종자도 마찬가지로 마린

한것인데 내외가 다 마음씨 후하다보니 미림에 있을 때는 동네 소 한가지였다. 마을사람들은 아무때나 제 소처럼 부렀고 여러 집의 온갖 잡사에 끌려다니는 소는 언제 한번 살이 올라볼새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이사와서는 성기가 제법 소를 끌고 부지

린히 꿀밭을 찾아다니는탓에 소도 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밭갈이때가 되자 강지주가 김선달을 찾아왔다.

그에게는 소작준 외에 자기 부치는 땅도 있었던것이다.

《여보게 선달이, 오늘부터 우리 밭을 갈아주겠는데 자네네 황소를 좀 빌려주게나. 우리 집에도 소가 없기는 하지만 밭갈이에는 쓸모가 없디네. 사람의 종자도 마찬가지로 마린

한것인데 내외가 다 마음씨 후하다보니 미림에 있을 때는 동네 소 한가지였다. 마을사람들은 아무때나 제 소처럼 부렀고 여러 집의 온갖 잡사에 끌려다니는 소는 언제 한번 살이 올라볼새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이사와서는 성기가 제법 소를 끌고 부지

치에 밝으신 어른의 말씀인 즉 리치에 딱딱 맞는 다음에야...》

김선달은 이렇게 혼연히 말하면서도 《홍, 삼돌이의 말이 옳았군! 이놈의 두상대기 남의 소에 실컷 맛을 들여봐라. 그러나 사냥군이 매년 농에게 날고기를 먹일 때 버리는 더 많은 고기를 때기 위해서라는 리치도 네놈이 알고있어야 해!》 하고 생각하였다.

강지주는 김선달이 혼연히 황소를 빌려주는것을 봐서 대단히 어수룩한자라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밭갈이할 때 뿐 아니라 후지질할 때도 황소가 어디까지나 황소지 암소에 대겠나, 자네네 황소는 일을 걸치게 하더군... 어찌 구지제구하며 김선달의 소를 빌려갔고 음에 짐을 나를 때에도 짐을 나르는데는 사내가 계집보다 월등하듯이 황소로 짐을 날라야 많이 실을 수 있다니 뭐니 하며 소를 끌어갔다.

그때마다 김선달은 《지당한 말씀》이니, 《백년 늙은 리치》니 하며 소를 군말없이 내주었다.

《확실히 좀 모자라는자야. 삼돌이녀석이 있을 때는 그놈을 한번 부리기가 굴에서 자는 꿈 끌어내기만큼이나 힘들더니 저놈에게는 호박에 동침처럼 속속 들어가거든. 그놈의 황소를 내 소처럼 부리니 우리 집 암소가 살이 질수밖에...》



한것인데 내외가 다 마음씨 후하다보니 미림에 있을 때는 동네 소 한가지였다. 마을사람들은 아무때나 제 소처럼 부렀고 여러 집의 온갖 잡사에 끌려다니는 소는 언제 한번 살이 올라볼새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이사와서는 성기가 제법 소를 끌고 부지

도 암컷들은 반쪽이나 갈다네. 이게 세상리치니 어찌겠나. 밭을 갈자면 황소가 함을 한번 부리기가 굴에서 자는 꿈 끌어내기만큼이나 힘들더니 저놈에게는 호박에 동침처럼 속속 들어가거든. 그놈의 황소를 내 소처럼 부리니 우리 집 암소가 살이 질수밖에...》

《아, 여부가 있으니까 리